

# 이젠 일상이 된 '벌초 대행'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 울 8089건 접수...대행료 8만4000원

농촌 인구 고령화에 맞을 가족 없고 가족 관념 떨어져 매년 증가

벌초 대행이 일상화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가족 등 후손들이 함께 날을 잡아 조상 묘를 벌초하던 전통 방식에서 전문업체에 맡기는 대행 방식으로 옮겨가는 이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벌초 대행 서비스'가 시작될 때만 해도 유교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대행 서비스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뿌리를 내리는 모양새다. 25일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광주전남본부에 접수된 벌초 대행 의뢰 건수는 8089건이다. 9월 10일 추석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하면 벌초 대행 의뢰 건수가 연례 9000~1만 건에 이를 것으로 산림조합은 보고 있다.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에 접수된 벌초 대행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2019년 6062건 이던 것이 2020년 8188건, 2021년 9054건으로 급

증 추세다. 농협전남지역본부도 연일 벌초 대행 의뢰가 밀려 들고 있다. 산림조합과 농협 이외에도 다수의 민간회사가 벌초 대행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지역에서 매년 이뤄지는 벌초 대행 건수는 수만 건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고물가 여파 속에 벌초 대행 요금도 적잖이 올랐지만 의뢰 건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분위기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조합 평균 요금은 올해 8만4000원으로 조정됐다. 기본요금은 6만원, 최대 10만원까지 청구한다. 유류비,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 7만 8700원(5만5000~8만원)에서 약 7% 인상됐다. 요금은 묘지의 크기, 차와 도로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

벌초 대행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얻는 것은 농촌 인구가 고령화된 데다 가족 관념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년 전만 해도 직접 벌초를 못 하게 되면 일가친척과 다른 가족,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등 품앗이를 해왔는데, 농촌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서 맡길 만한 사람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벌초 대행 비용이 합리적이고 신청방법도 간단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산림조합 등 대행 서비스 업체에 따르면 첫 벌초 대행 때 신청자가 동행한 이후 그다음부터는 동행할 필요가 없다. 명절 당일 성묘만 하면 된다. 신청자가 원하면 매년 벌초 작업에 동행해도 된다. 동행을 못 할 경우 작업 전후 사진을 받을 수도 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국내외, 전국 각지에서 벌초 대행 의뢰가 들어온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당시 벌초 대행 의뢰가 폭증한 이후 매년 줄지 않고 있다"며 "한편 벌초 대행을 이용한 출향 인사들이 매년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꽃밭처럼 '기쁨의 연속'이길 보랏빛꽃의 맥문동이 소담스럽게 피어나 있는 광주시 북구 문흥동 천지인 문화소통길에서 25일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때 영암 민간인 133명 학살 당해"

27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25일 한국전쟁 당시 영암군 학산면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민간인 133명이 희생된 사건이다"고 진실을 규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9차 회의를 열고 '영암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을 비롯 '형제복지원 사건' 등 총 3건의 안전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8월 초부터 1950년 11월까지 영암군 학산면에서 민간인 133

명이 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경찰 가족, 우익인사와 그 가족,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살해됐다. 희생자 중 10세 이하가 24%이고 50대, 60대 희생자도 적지 않았다. 여성 피해자가 41%에 이르렀고 희생자의 60%가 농업과 가사에 종사했다. 36%는 15세 이하 아동이다. 가해 주체는 지방 좌익과 빨치산이다. 인민군 점령기였던 1950년 8월 초순에 발생한 사건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민군 퇴각 이후 치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산면 실정 및 희생자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방 좌익의 활동 시기인 1950년 10~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면서 "위령사업 지원 방안 마련과 역사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 수정하고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대법원, 전범기업 강제집행 빠른 결정을"

광주 시민단체 집회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전범기업에 대해 빠른 강제집행 결정을 내려달라"며 집회를 열었다. (사)일제강제동원사건모임은 고려하나,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등과 함께 25일 대법원 후문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특별현금화 명령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범기업 상표권 등 매각 결정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93), 양금덕(93) 할머니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체는 "대법원은 미쓰비시의 김성주 할머니 사건 재항고와 관련해 지난 19일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판단을 유보했다"며 "지난 7월 26일 외교부가 재판부에 '의견서' 형식을 빌려 판결 보류 요청을 한 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견서에서 강조한 '일본과의 외교적 협의 노력'은 이 사건 판단에 직접적 요소가 될 수 없고, '민관협의회'도 피해자들이 등 돌린 '식물협의회' 처지가 돼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미 원고 중 3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생존자 역시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회복을 명분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며 "제국주의 반인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우리 사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쓰비시는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특허권 2개를 압류당했으며 매각을 위해 상표권 특별현금화 결정까지 받았으나 재항고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당 사건 주심 법관인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4일 이전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31일 개장...40여 점포 참여

광주시 남구가 오는 31일 백운광장 일대에 조성 중인 길거리 음식 상가 '스트리트 푸드존'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장소는 남구청 맞은편 모야산부인과 앞에서부터 남광주농협 맞은편까지 약 310m 구간이며 총 40개의 점포가 마련됐다. 양식·중식·빵·아시아 음식 등 먹거리 점포 25개,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지역자활센터 등이 운영하는 문화예술 점포 10여 개 등이 입점 계약을 마쳤다. 남구는 또 2023년 하반기까지 스트리트 푸드존 인근에 14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구는 백운광장 일대 뉴딜사업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사업비 26억여원을 투입해 스트리트 푸드존을 만들어 왔다. /유연재 기자 yjyou@

## 난방공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 허가' 승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한 고�형 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 허가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현)는 25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을 준수했음에도 나주시가 위법한 처분을 했고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하다더라도 허가 취소가 아닌 경고와 금지 및 개선명령 등을 해야 한다는 난방공사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운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70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준공됐다. 그러나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 반대가 겹치면서 나주시가 가동을 불허했다. 난방공사는 앞서 2017년 11월과 2018년 6월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접수했으나 반려됐고 2020년 12월에도 사업 개시 신고가 반려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나주시는 고�형연료 품질검사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연료 제품 사용 허가 취소 통보를 했다. 이에 난방공사는 연료 사용 허가 취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난방공사는 사업 개시 신고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승소가 확정되자 지난 7월부터 나주 SRF 발전소 가동을 시작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0%) 170,000 (15%) 160,000 (20%)
	3개월	570,000	513,000 (10%) 484,500 (15%) 456,000 (20%)
	6개월	1,080,000	972,000 (10%) 918,000 (15%) 864,000 (20%)
	12개월	2,040,000	1,836,000 (10%) 1,734,000 (15%) 1,632,000 (2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MG금남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